

요즘 우체통안에 놀렸던 권리에 대한 주장이 집단적으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학생들은 둘 를금 이상을 반대하고 학사행정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산업현장에서도 각종 극로조건에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나와서 데도 나파업에 罷日이 없다. 그동안 해직 구속 또는 死傷한 사람들에게 각각 상당한 원상회복을 해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즐기친다. 약사가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도 휴진으로 맞서고 선생님들이 교원노조를 만들겠다고 하면 자녀들을 학교에 안보내겠다는 학부모들도 나선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단속하면 장사를 중지한채 거리로 뛰쳐나오고 신도시개발지역의 주민이고 속도로를 점거한다. 건물에 매수하여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일주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건물을 불태운다.



不相抗

時評

나. 대로서 百家爭鳴이라고 아니 할 수 없
어느 경우에도 각자의 유후사함이
나 일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끈기와
인내로써 대화하여 해결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權利 주장의 方法

이를 확인하고 양쪽의 일정을 접는
서고 누구란도 자기네에게 둘정적
이면 동지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적
으로 몰아버리고 외면한다.
파업은 자기들이 일하기를 거부
하는 단체행동일텐데 날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전산업이나 국가경
제를 불모로 하는 과격행동이 일반

게 주장해서 회복할수 있는 권리
자 아무말 못하고 넘겨버리기가
장이다.

서나마 우리가 백주자에게 그를
명예한 계위반을 학의하고 소
을 제기해서라도 다루어 볼지는 아
니를다.

그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우리 자녀의 의식구조와 민족시민으로서의 융합방식은 제자리 걸음을 이어서 마치 어른된 몸에 옛날 어린童의 옷을 그대로 입은 모습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합리적이고 민족적인 사상처럼 유통의 배양은 고사하고, 예로부터 이웃 섬나라의 短氣와 一氣呵成의 초조를 비웃으면서 은근과 끈기 말로 배달민족의 특성이라고

하여 관계에 의하여 기본적
방언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야 하고, 학교로써 찾아
먹을 권리조차
보지도 못하게 외국 상대방에
를 떠나거나 지나친 선
베주는 어리석을도 지 않되어야
것이다. 유큰대 국내적으로 쓸
이 거칠기만 해도 못쓰고 국제
로 지나치게 윤숙하기만 해도
다는 것이다.

를 떠났다. 도급계약이나 인력송 계약을 맺으면서 종종의 밤낮 가 육수하는 부당하고 무리한 계 조건을 변명하게 협상 한번 제대 해보지도 못함채 감수하는 경우 많았다. 그러나 공사대금 지급 지연되거나 보상을 안준다고 서 요즈음처럼 실례행사를 해본 이 없다. 비록 불리한 계약조건하

「통제가 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책임이 고양되었고 지금이라도 진실 계약서를 뒤져서 저들의 계약을 행이나 부당처우가 발견되면 그나라에 몰려가서 연좌형벌을 한다. 그들 나라의 대사관이라도 점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주장방식은 국제법에 두 가지 원칙을 두고 주장하고 경

이야기는 어디로 없어지고 모
바쁜 생활의 페이스 속에서 한
설립해지게만 되었다.
는 바야흐로 개발화 및 국제화
인지라 국내에서의 혈통방식과
관계에 있어서의 불규에 대처하
기준과 방식이 크게 달라질지도
또한 우리가 국내에서 보여
血腥방식과 해결결과는 곧바